

周易思想의 形上形下論과 生死觀(四)

跛龔生

그런데 朱子는 다시 『化而裁之謂之變, 推而行之, 謂之通, 裁是裁載之義 如謂一歲裁爲四時, 一時裁爲三月, 一月裁爲三十日, 一日裁爲十二時, 此是變也, 化而裁之 方是下頭項, 推而行之, 便是見於事, 如堯典分命裁和許多事, 便是化而裁之, 到敬授人時, 便是推而行之』라 하였다.

勿論 『化而裁之』의 『裁之』를 載□의 載라하여 年月日 時의 時間的 載裁로 說明함은

不可타 할 수 없다. 그러므로 乾은 天時로서 時間이 된다. 그러나 生命을 가진 事物은 오즉 時間的으로 區分하여 그의 段階를 設定할 뿐이오. 그 實體를 分載할 수 없다. 그것은 그 生命의 破滅을 招來하므로서이다. 따라서 事物의 變과 通過의 間에는 비록 時間的으로 相距함이 있으나, 그 生命의 實體는 分裂된 二個의 段階가 아니다. 그 뿐만 아니라 『推而行之』를 堯典의 事務分□으로 說明하여 分職을 一事物의 時間的 裁載 또는 生命的 段階와 混同함은 매우 不可하다. 그리고 變과 通은 元來 一事物의 始終을 가지고 말한 것이니, 언제나 同一事物의 變이오. 通이 되지 안할 수 없다. 그와 反하여 分職이란 것은 事와 物이 다른 것이니, 그들은 各各一事物로서 모다 變과 通의

時間的 裁載과 生命的 段階는 있을지라도 分職 그것에 變이있고 또 通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分職 그것은 生命이 있는 事物이 아니오. 오즉 여러 生命이 있는 事物의 間에 限界를 劃定한 界線을 이룰 뿐이다. 그러므로 『化而裁之謂之變, 推而行之謂之通』이란 文意에 對한 朱子解의 沒理會는 時間과 空間과 分職의 三個意識이 混同되어 그를 單一觀念으로 表現함에잇으니 이제 그 混□을 整□하려면 三個意識의 界線을 明示하지안하면 안 될 것이다.

그런데 『化而裁之』는 乾의 □始이니 天時即時間을 이룸이오. 『推而行之』는 坤의 □生이니 地理即空間을 이룸이다. 다시 말하면 天時가 □始하여 化

하고 裁하야

變 함에 地理는 그를 推하고 行하야 通하니 生을 生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天時인 乾이 化하고 裁하야 變함은 『化而裁之, 謂之變』이오. 또 地理인 坤이 그를 推하고 行하야 通함은 『推而行之, 謂之通』인 것이다. 그리 하야 時空으로 範圍한 天時와 地理는 生을 生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生을 生함에 있어서 時空으로 範圍한 變과 通을 朱子가 前後로 兩載하야 時空의 不相干을 말함은 勿論乾坤의 載를 알지 못한 까닭이 어니와 分職은 乾易坤簡의 原理로 비롯한 것이니, 乾坤이 同一한 觀念이 아닌 것과 같이 分職된 各事物은 同一한 實體를 가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의 各事物은 各各生命이 있어 或은 裁하야 變하고

或은 行하야 通하지마는 元來 混合한 事物 그것에는 生命이 잇는 것이 아 니니 그는 一個의 生命體로해서 그의 變과 通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 므로 分職은 어느 事物이 한번 分職된 뒤에는 그들의 一事一物은 各各別個의 生命體로서 變과 通의 造化를 實現하야 저의 生命體인 界線을 設定할뿐 이오. 또 어느 事物이 分職하기 前에 잇어서는 全體로서 變과 通의 造化를 實現하는 것이다. 그리 하야 時間觀念과 空間觀念과 分職觀念은 세계의 觀念의 各各獨立한 實在로서 分別되고 그와 同時에 化推, 裁行, 變通의 義는 스스로 闡明되는 것이다. 그리고

誠 齋楊氏가 『此一節, 所以別言易之體, 極言易道之用也, 何謂體, 曰道曰 器是也, 何謂用, 曰變曰通曰事業是也』라 함은 物과 理가 化推裁行하는 變通 原理에 依하야 分裂되는 것이 아니오. 結合되는것임을 잘 論破하였다.

그런데 繫辭傳은 이어 『是故로 夫易은 聖人이 有以見天下之隨하야 而概諸 其形容하며 象其物宜라是故로 謂之象이오. 聖人이 有以見天下之動하야 而觀 其會通하야 以其典□하며 繫辭焉하야 以斷其吉凶 여라 是故로 謂之爻이니 極 天下之□者는 存乎卦하고 鼓天下之動者는 存乎辭하고 化而裁之는 存乎變하고 推而行之는 存乎通하고 神而明之는存乎其人하고 默而成之하며 不言而信은 存乎其德이라』 하야 八卦公式으로

易 理를結論하야 人事가 易理와 合致 함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周易의 聖 人云云의 『聖人』은 勿論 人格者를 이룬 것이지마는 그 實은 一種의 擬在 人格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 方法論의 人格化로 보는 것이 조타고 생각하 거니와 『聖人이 設卦하야 觀象繫辭하야 以明吉凶이라』 하니 聖人은 저의 意識으로 物을 設하고 그 象을 觀하야 任意의 辭를 繫함으로써 事物의 吉凶을 判斷하는 者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聖人은 天時에 依하고 地理에 則하야

自然의 事物을 自然 그대로 設하여 그 象을 觀함으로써 辭를 繫하는 者이니 그러므로 그 辭는 任意의 것이 아니오. 自然한 事物의 實相일뿐이다. 그리하여 天時地理의 運行에 依한 事物의

必然한 吉凶을 闡明하여 그 吉한 者를 助하고 凶한 者를 除함을 힘쓰는 것뿐이다. 또 朱子는 『極天之□者存乎卦，謂卦體之中，備陰陽變易之形容，鼓天下之動者存乎辭，是說出這天下之動，如鼓之舞之相似，卦卽象也，辭卽爻也，大抵易只是陰陽奇遇而已，此外更有何物』 이라함은 孔子의 觀念推說에 不快를 느끼 말이지마는 그러나 周易은 實體로 해서 太極과 五行이 있고 範圍로 해서 時間과 空間卽 乾坤이 있고, 그 氣勢로 해서 寄寓가 있고 또 情態로 해서 陰陽이 있어 物의 極致인 太極으로 비롯하여 天地의 自然作用 卽造化를 말한 者이니 『易只是一箇陰陽而已，此外更有何物云云』의

獨斷은 許할바 아니다. 그러나 그 言中에 易理는 物理인 것과 또 物理以外의 道義上의 推說은 易理라 할 수 없다는 觀念을 分明히 表現하여 가만히 孔子, 程子의 推說을 指彈한 것은 看過할 바 아니다.

以上으로 보건대 周易思想의 生死觀은 單純한 運命論이 아니다. 繫辭傳의 『樂天知命云云』을 가지고, 宋儒의 術家들이 周易思想을 運命說로 歪曲한 것은 너무도 無知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저 □□□然論과 運命說을 混同한 까닭인데 이 問題는 다른 機會에 論□하려니와 周易은 死生을 陰陽或은 闡明으로 表現하여 그의 不可分을 論術하였다. 卽 陰中에 陽이 있고 陽中에 陰이 있는 것과 같이 또는

幽中에 明이 있고 明中에 幽가 있는 것과 같이 生中에 死가 있고 死中에 生이 있음을 말하였다. 勿論生은 死의 否定이지마는 그것은 同一한 事物이 變化함이요. 分裂함이 아니다. 그리고 生은 언제나 死에 先行하지마는 周易은 『原始反終』이라 하고 또 『數□知來』라 하여 生에 先行한 死를 察함으로써 生의 說을 理解하는 方法을 삼았다. 그리 하여 周易은 物質의 變化를 말하고 또 그의 不滅을 말하였으나, 個體의 不死觀念은 澈底히 排擊하였다. 또 化推裁行의 變通原理로 볼 것 같으면 死는 老表現象의 最後에 있어서 避할수없는 終末을 이룸인데, 그 行程이 陰陽兩態의 對立에 依하여

推移함으로 生中에 死의 萌芽가 包含됨은 勿論이요. 또 死中에 生의 萌芽가 潛伏함도 立論되고 있다.